



# 제1회 물류사랑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하며...

(사)한국물류협회 / 사업부장 이 민 수



10월은 달림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절이다. 자연과 더불어 삶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인간의 열정이 축제의 한마당을 펼치는 것이다.

올해로 4년째, 건강을 위해 그리고 인생의 참의미를 찾기 위해 달리기를 시작하였다. 체계적인 훈련과 연습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틈 만나면 한강고수부지를 달리곤 한다.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같이 달리는 사람, 길거리에서 응원하는 사람, 자원봉사자들과 어울려 즐겁게 달린다.

가끔씩 달리는 이유를 질문 받는 때가 있다. 답변이 쉽지 않다. 마라톤은 삶의 철학이기 때문이다. 나는 달릴 때마다 철학자가 된다.

출발선에서 스타트하면 다른 사람이나 일상의 고뇌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다. 다른 사람을 미워할 겨를이 없다. 오직 나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시작은 내 몸을 위해서 달리지만 나머지 시간은 내 영혼을 위해서 달린다. 달릴 때마다 고독하다. 함께 달리는 사람이 있어도 각자의 길을 달리기 때문에 외롭기는 마찬가지이다.

마라톤은 그 고독 속에서 지내온 날을 뒤돌아보게 하는 삶의 철학이며 나는 그것을 즐기는 철학자가 되는 것이다.

“만약 무엇에서 이기고 싶다면 100m를 뛰어라, 그러나 진정 무엇을 경험하고 싶다면 마라톤을 뛰어라.” 에밀 자토팩이 1952년 헬싱키올림픽 마라톤대회에서 우승하고 한 말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한 분야에서 국내의 1%이내에 들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학문적으로 어떤 경지에 도달한다거나, 스포츠 분야의 최고가 된다가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다거나 백두대간 등산코스를 종주한다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여 1%의 대열에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노력하여 자신과의 싸움과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마라톤을 사랑하게 된 배경의 하나이기도 하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내 삶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은 마라톤이다. 40대 중반을 넘기면서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

나 무언가 새로운 변신을 시도할 필요성을 느꼈다. 돌이켜 보면 지나온 삶속에서 주기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왔다. 삶이 고통스럽고 몸서리 쳐질 때마다 현실을 돌파하는 타개책으로 전문산악회를 통해서 전국각지의 유명산들을 등산하였고, 어느 정도 지구력과 심폐기능이 뒷받침되어 마라톤을 하기로 마음을 가다듬었다.

처음으로 접한 것이 2003년 5월 25일 한국해운신문이 주최한 바다사랑마라톤대회에서 10km를 완주한 것으로 55분 37초의 기록이다. 연습량에 비해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2004년은 공식대회는 참가하지 못했고, 2005년 10월 9일 제1회 이봉창의사 기념마라톤대회에서 하프마라톤에 참가하여 1시간 49분 46초의 기록이후 아직 기록갱신은 하지 못하였지만 금년 내에는 기필코 달성하리라.

금년에 하프마라톤 10개 대회참가가 목표이고 지난 9월 30일 고양마라톤대회까지 6번째 공식대회를 참가하였다. 그동안 참가한 대회 중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대회는 지난해 10월 15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된 제2회 이봉창의사 기념마라톤대회였다. 허리의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한의사의 만류를 무시한 채 대회에 참가하였다. 3키로 정도 달리다보니 허리에 통증이 엄습하고 5키로 지점에서 포기할까 망설이기도 하였지만 에어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인내의 한계에 도전하였다. 10키로 지점을 통과할 쯤에는 팬티의 마찰로 인해 피멍이 드는 통증까지 감내해야 했다. 구간마다 급수대를 통과하면서 걷다가 뛰면서 결국 하프마라톤 21.0975km를 완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하나의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성취하고자 마는 의지력을 실험하는 시험무대였다. 완주이후의 성취감은 직접 체험해 보지 않고는 그 느낌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비록 몸은 지칠대로 지쳐 피곤하고 고통스럽지만 완주하고 완주메달을 목에 걸고 마시는 막걸리 한잔은 청량음료가 되어 또 다시 다음 대회를 위한 구상으로 마음은 분주하다.

미래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바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바다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해운신문이 개최하는 바다의 날 마라톤 대회가 해운 및 물류관련 종사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협회에서도 그동안의 마라톤 사랑을 체험하면서 물류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한마당 축제를 기획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발동하였다.

물류사랑마라톤대회는 2007년 11월 15일, '물류의 날'을 기념하고 현 정부의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추진전략을 일반 국민들에게 물류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물류부문 종사자들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물류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한 친선과 협력을 증진하고, 마라톤을 통한 끈기와 자긍심을 고취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물류산업을 발전시켜 글로벌 물류강국을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2007년 11월 17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일대 한강고수부지에서 개최하는 물류의 날 기념 제1회 물류사랑마라톤 대회의 개최 취지에 동참하시는 마라톤 달달이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대회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유통업, 물류업 그리고 물류관련기관 및 단체 종사자 외에도 물류의 날 마라톤 대회를 좋아하시는 각계 각층의 마라톤 동호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환영합니다. **물류**